

중국 전통건축 답사기

Chinese traditional architecture travelogue

김석환 | 타올 건축사사무소

제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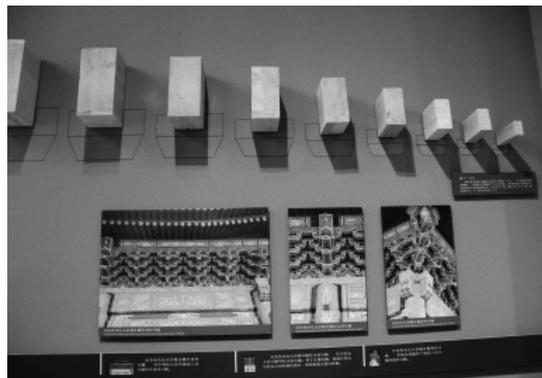
현재 진행 중인 '한옥인력양과정'에서 2012년 11월 1일부터 3일 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의 전통건축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에는 이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김철민, 윤대길 소장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김석환, 김은하, 김종운, 나정운, 민경철, 박상민, 윤미섭, 이영선, 정수일, 정현미, 정호영, 조병섭, 천국천 건축사 그리고 사무국에서 허 훈 실장과 빈홍기 팀장 등 17명이 참가했다.

중국 건축은 한국, 일본 등 동양 건축의 뿌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그 바탕위에서 기후와 문화 그리고 지역적 차이에 따라 형성된 우리 고유의 건축적 특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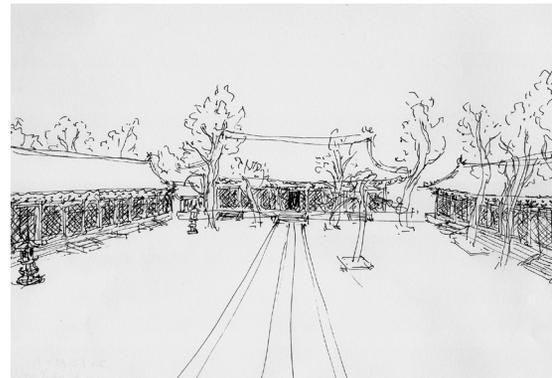
7시 25분 모임장소인 김포공항 2층 인포메이션 센터에 도착해 일행과 인사를 나누고 짐을 부치고 나니 시간에 여유가 있었다. 예정 출발시각은 9시인데 앞 비행기의 출발이 지연되어 출발시간을 넘겨 9시 38분부터 탑승을 하기 시작해 9시 57분 이륙했다. 비행기가 창공으로 솟아오르자 대지가 내려 보였다. 마스



고건축박물관 내부



건물의 척도가 되는 소로 전시물



고건축박물관 스케치

한 햇살이 대지에 산란하여 마치 봄이 올 때처럼 땅기운이 느껴졌다.

11시 40분 북경공항에 도착했다. 현지 시각은 한 시간 이른 10시 40분이었다. 공항을 나서자 가이드인 황일만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다. 그는 조선족으로 연길에 사는데 가이드 경력은 20년 정도 된다고 했다. 북경은 자금성을 중심으로 4개의 순환도로가 고리 모양으로 둘러치고 있는데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가는 길은 제 4 순환도로라고 했다.

북경(北京)

북경은 동서 177km, 남북 155km의 면적 17,900km²이다. 허베이(河北)성 중앙부에 위치하며 중앙정부 직할시로서 광대한 허베이 평야의 북부에 있는 거대한 분지형 도시이다. 그리고 약 700년간 거의 중단 없이 중국 수도의 자리를 지켜온 베이징은 산시성(陝西省)의 장안(長安)과 허난성(河南省)의 뤼양(洛陽)과 함께 가장 오랫동안 수도의 지위를 지켜온 고도이다.

북경 주변지역은 선사시대에 최초의 인류들이 살고 있었다. 1918~39년, 50만 년 전에 살았다고 하는 북경 원인과 5만 년 전에 생존했던 상동인(上洞人)의 화석이 북경에서 남서쪽으로 약 48km 떨어진 저우커우덴에서 발견되었다.

현재의 북경은 모든 면에서 수도로서의 위상을 갖고 특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학생의 선발이나 인맥 모든 면에서 북경 출신들이 주축이 되고 있는데 비해 기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와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11시 20분 식당에 들러 오리 요리로 점심을 먹고 12시 50분 고건축 박물관으로 향했다. 가이드가 제2순환도로를 지나고 있다고 했는데 차량이 많이 붐볐다. 현재 북경은 교통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이다. 가다보니 우측에 강이 보였다. 그것은 쿠빌라이 칸(1215~94)이 1278년 대도(大都)를 만들 때 건설한 길이 1,178km의 인공 수로로써 양쯔강 이남의 지역에서 공물로 걷어 들인 쌀을 베이징 성 안의 새로운 인공호수까지 운반하기 위해 운하(통후이, 通惠)를 파서 대운하와 연결시킨 것이다.

고건축박물관

천단공원 남단을 지나 13시 35분 고건축박물관에 도착했다. 이곳은 선농단이 있던 곳으로써 2002년 리모델링을 해서 고건축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입장권을 사고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기니 커다란 전통건축양식 건물의 정면이 보였다. 그 주변은 커다란 노거수 등이 원림을 이루고 있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중앙부 천정에 등글게 용이 조각되어 있었다. 거기서 문이 열려 보이는 안쪽에는 사면에서 건물이 둘러친 중정이 놓여 있었다.

일행이 들어서자 인상 좋은 박물관 여 학예사 분이 나와 안내와 설명을 해 주었다. 그 곳은 중국 건축의 역사적 시원과 발전 과정을 살펴볼 수 있도록 모형과 사진 자료 등을 주제와 연대순으로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궁궐 사찰 등 다양한 건물의 모형들이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어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다.

앞쪽 건물을 보고 중정을 지나 맞은편 건물로 들어서니 거기에는 건축에 사용된 도구와 재료 그리고 도시와 사찰의 사례, 구법의 변천에 관한 내용이 주제 별로 잘 전시되어 있었다. 커다란 그 건물 내부를 올라다보니 잘 짜인 지붕 가구가 노출되어 보였다. 다시 마당을 나가 좌측 건물 끝 모서리 출입구를 통해 안으로 들어섰다. 입구에는 사합원 등 주거 건물이 전시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황릉과 그 구조에 관한 자료와 모형이 전시되어 있었다. 다시 중정으로 나와 맨 처음 들어선 건물에서 전시도록을 사고 15시 3분 박물관을 출발해 천단공원으로 향했다.

천단공원

15시 15분 천단 공원 근처에 도착해 차에서 내려 걸어 들어갔다. 천단공원은 90만평 부지에 원구단 황궁우, 회음벽, 기념전 등이 차례로 중심축선 상에 놓여 있다. 자금성에서 보면 남동에 천단, 남서에 선농단 동쪽에 일단 서쪽에 일단, 동쪽에 지단이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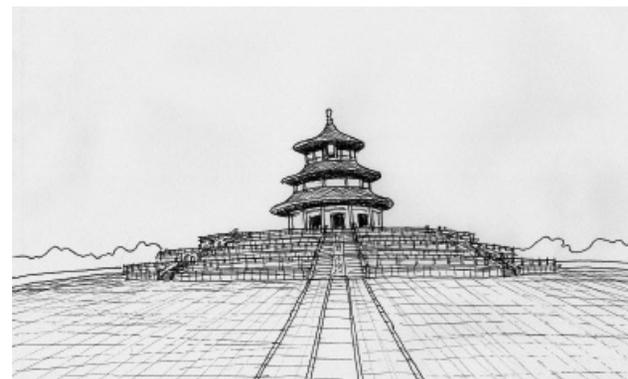
천단공원 맨 앞쪽에 위치한 원구단(圓丘壇)은 공원 남천문(南天



천단공원 내 천단(天壇)



황궁우



기념전 스케치

門) 입구 근처에 있는데 1530년에 만들어졌다. 바깥쪽의 4각담장과 안쪽의 둥근 2중 담으로 둘러싸인 공간에 원형의 3단 대리석단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천지인을 상징한다. 원구단의 한가운데에는 황제가 기도를 올리는 원심(圓心)이라는 둥근 대리석 판이 있는데 거기서 손뼉을 세 번 치고 하늘을 향해 통찬하고 외치면 하늘의 문이 열린다고 한다.

원구단을 지나 북쪽 축선 상에 보이는 황궁우(皇穹宇)는 역대황제의 위패를 모셔 둔 곳이다. 명의 가정(嘉靖)황제 시대에 세워지고, 그 후 청의 건륭황제 시대에 재건되었다. 황궁우에서는 회음벽이 유명한데 천단공원 축선 상에 있는 가운데 길 앞부분 판석에서 손뼉을 치면 소리가 되돌아온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천단공원의 맨 뒤쪽에 있는 기년전(祈年殿)은 이곳의 상징적인 시설로써, 황제가 풍년을 기원하는 제례를 행한 곳으로 3층의 원형 기단 위에 세운 높이 38m, 직경 30m의 건물이 세워져 있다. 이 건물의 외부는 위로 점차 줄어드는 3층으로 보이지만 내부는 단일 공간으로 천정까지 툭 트여 있는데 대들보나 마룻대를 사용하지 않은 독특한 건축방식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에는 천정 돔을 받치는 안쪽 4개의 높은 기둥이 있고 그 주위에 12개씩의 원주가 2중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꽃무늬가 그려진 4개의 용정 주는 4계절을 나타내고 안쪽의 12개는 1년의 12개월, 바깥쪽의 것은 12간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내외합계 24개의 지붕기둥은 24절기를 나타내고 있다.

5시 10분 천단동원을 현지식으로 저녁을 먹고 7시 10분 숙소인 사합원 호텔로 출발했다. 숙소로 이동하면서 북경가로의 야경을 보며 지났는데, 무술학교 간판이 보이자 가이드가 자금성 및 산해공원 무술학교 이연경도 이 곳 출신이라고 했다.

사합원 호텔

대로변에 내려 우측 골목길로 접어들어 숙소인 사합원 호텔을 찾아 들어갔다. 골목을 걸어가다 보니 사합의 대문과 식당, 상가들에 설치된 원색의 네온사인 간판과 장식 등이 반사되어 조금 현

란한 가로 표정을 띠고 있었다. 그런데 그 거리 풍경을 찍으며 가다보니 일행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 겨우 숙소를 찾아 들어갔다 중국 전통건축 답사 일정 중 사합원 호텔에서 하룻밤을 묵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었다.

제2일

다음날 아침 일찍 잠이 깨어 세면을 하고 골목길을 오가며 스케치를 하다 다시 숙소로 돌아와 보니 일행이 식사를 하고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급히 식사를 하고 짐을 들고 나오다 다시 이곳저곳을 돌아보았다. 일행이 묵은 사합원 호텔은 전형적인 3진 구조로 되어 있는데 대문은 동남쪽에 모서리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처럼 3진으로 구성된 사합원은 전원 원자 후원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문을 들어선 전원 영역에는 손님이나 하인들의 거처가 위치한다. 거기서 가운데 중정인 원자로 들어서는 전면에 보이는 벽이 영벽인데 그 중앙에 있는 문은 수화문(垂華門)으로 '二門' 또는 '내분'이라고도 부른다. 수화문은 대문보다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원래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대문이 동남쪽으로 옮겨오면서 그 중요성이 작아진 대신 수화문이 주택의 중심축선에 자리해 실질적인 입구의 역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8시 40분 사합원 숙소를 나와 거리를 지나 대로로 나왔다. 가다 몇 분이 가게에 들러 물건을 사느라 버스 타는 곳으로 늦게 도착하여 9시 30분 버스를 타고 자금성으로 향했다. 사합원 골목길에서 연결되는 간선도로는 아침 차량이 분주했다.

자금성

자금성을 관람하기 위해 맨 바깥문인 전문 근처 도로를 조금 지나 내리니 앞쪽에 모택동 미라 기념관 등이 보였는데, 광장에는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벌써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다. 도로에 내려 지하도를 건너 천안문 광장 쪽으로 잠시 걸어갔다.



사합원호텔의 전원과 수화문



사합원호텔의 중원(원자) 부분



사합원호텔의 후원부분

자금성이란 이름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국의 우주론에서 황제가 거주하는 곳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동서로 760, 남북으로 960m, 담장높이 11m, 둘레길이 4km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로써 15명의 명나라 황제와 9명의 청나라 황제가 중국을 다스렸던 곳이다. 800채의 건물과 일명 9,999개의 방(실제로는 8,707칸이라고 한다.)이 배치되어 있다.

도시의 축조 원칙을 밝힌 주례고공기의 천자오문 제후삼문(天子五門 諸侯三門)의 원칙에 따라 자금성은 오문을 통과해 정전인 태화전에 이르게 되어 있다. 현재는 그 중 제3문 대명문 자리에 모택동 주석의 미라 전시관이 자리 잡고 있고 천안문이 제4문이다.

오문 안으로 들어가니 태화문 광장이 나왔다. 태화문 앞에는 금수하(金水河)가 흘러가도록 해 놓고 그 위로 걸린 5개의 흰 백옥 석 다리를 건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천상 세계로 들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는 듯 했다.

태화전 뒤에 있는 중화전은 태화전에서 의식을 거행하기 전에 황제가 휴식하고 의식을 준비하던 곳이고 보화전은 명나라시기 황제가 예복을 바꿔 입던 곳으로 과거를 시행하기도 했다. 경운문을 지나 봉선전 현관이 걸려 있는 건물로 들어갔다. 그 곳은 현재 황실에서 받은 수많은 시계들을 전시하는 시계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다.

그 곳을 보고 나와 다시 중심 축선 상에 위치한 건청궁 영역으로 들어서서 건청궁-교태전-곤녕궁을 차례로 지나 후원을 둘러본 다음 후문인 신무문으로 자금성을 나왔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금성 뒤에 있는 경산에 올라 자금성을 바라보고 식당으로 이동해 현지식으로 점심 식사를 하고 1시 45분 오후 일정으로 사합원 개조 및 사례 탐방을 위해 식당을 출발했다.

사합원거리

2시 15분 남라고항 역사문화지구 사합원 지역에 도착했다. 대로변에 내리자 청화대에서 박사과정에 있는 신혜원 씨가 마중을 나와 안내를 해 주었다. 함께 안으로 조금 걸어가다 보니 전통가

로의 입구가 나왔다.

그 안쪽을 보니 붉은 등이 여러 개 걸려 가로를 장식하고 있고 가로에는 관광 상품을 파는 가판대 시설이 보였는데 그 분위기가 마치 서울의 인사동 거리 같은 느낌이었다. 중심 가로를 따라 안쪽으로 가면서 많은 관광객들과 발길이 부딪혔다.

길을 따라 이 곳 저곳 걸으며 가로풍경을 느끼고 사합원 대문 안을 기웃거리기도 했지만 반듯한 사합원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신혜원 씨가 반듯한 곳으로 안내한 곳이 중국 회화사에서 가장 위대한 화가로 꼽히는 제백석 고택이어서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다.

바깥마당을 거쳐 중문 안으로 들어서니 사방의 건물에 둘러싸인 너른 마당이 나왔다. 사합원은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형 주택으로서 중정을 중심으로 4채의 건물이 모자형으로 둘러치고 있는 가옥 구조를 의미하는데 그 구조가 내향성과 폐쇄성, 위계성, 대칭성 등을 가진다. 그리고 건물들 중에서 가장 안쪽의 남향으로 위치한 건물이 주인이 쓰는 정방(正房)이고 그 좌우 건물이 아들들이 쓰는 상방(廂房), 그리고 아랫부분이 손님과 하인이 거처하는 도방(倒房) 또는 도좌방(倒座房)인데 그러한 사합원의 가옥 구조는 중국의 가족제도 및 종교, 사회, 문화 그리고 도시의 방형의 가로 조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곳을 나와 개조중인 사합원을 둘러 보았다. 바깥 도로에 면한 건물을 상가나 식당으로 개조하고 있는 듯 했는데 골조만 두고 벽을 철거한 다음 유리 접이문을 달고 있었다. 그리고 전면의 건물이 개조됨으로써 전통적인 중정의 느낌은 사라지게 될 듯 했다.

제3일

청화대 건축관

호텔서 조식을 하고 9시 15분 청화대에 도착하니 그 곳 건축과 박사과정에 있는 백소훈 씨가 나와 안내를 했다. 그는 논문을 다 마치고 이번학기에 졸업을 하게 된다고 했다.



긴 축선 상에 펼쳐 보이는 자금성 일우



자금성 태화전



경산에서 바라보이는 자금성 전경



북경 남라오항 사합원가로 모습



제백석 고택의 제백석 동상



제백석 고택의 중정 모습

일행이 안내한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자 백소훈 씨가 그곳이 자신의 지도교수인 왕귀상(王貴尙 1950~) 교수 연구실인데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자료를 통해 보여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설명을 담당할 시덕화 씨를 소개했다.

소개 받은 시덕화 씨가 최근 몇 년간 연구실에서 진행해온 프로젝트들을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 설명해 주었다. 중국의 전통 건축 사업은 리모델링이나 문화재 일은 별로 없고 새로 짓는 신도시, 사찰, 도관 등 지역과 유형이 다양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다고 했다. 그리고 신축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이 원래 있던 터이거나 복원 사업이면 시대성을 학술적으로 규명해서 그 시대 양식을 적용한다고 했다. 또 발주자가 어느 시대 양식을 주문하기도 한다고 했다.

청화대 사합원

12시 45분 청화대 내에 있는 사합원에 도착하니 관리 직원이 나와 확인을 하는 동안 기다리라고 했다. 입구에서 잠시 안쪽을 바라보니 마치 서양의 장원처럼 큰 나무가 중앙의 길을 중심으로 대칭적으로 서 있었다.

이 사합원은 영락제의 동생이 살던 곳이어서 그런지 규모가 매우 컸다. 건물이 사방에서 중정을 둘러친 기본 구조는 일반 사합원과 같으나 넓이가 넓고 회랑과 건물로 구획된 기본 구조가 반복적으로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건물의 구법이 격식을 잘 갖추고

있고 정원은 정갈하게 조성되어 있어서 좌우의 너른 마당을 보며 트인 회랑을 오가는 동안 평온하고 한가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원명원

잠시 후 청화대를 나와 식사를 하고 원명원에 도착했다. 원명원은 규모가 매우 큰 중국의 대표적 전통 황가원림인데 17세기에 아편전쟁 기간(1856~60) 1860년에 영국-프랑스 연합군에 의해 폐허화되다시피 크게 파괴되었다. 흑고니가 노닐고 있는 호수를 바라보며 걸어가니 안쪽에 전시관 건물이 나타났다. 그 안에 들어가니 모형이 거대한 크기로 조성되어 있었는데 청화대 건축원에서 만들어 주었다고 한다.

전시관을 나와 다시 공원 안쪽으로 들어가니 파괴된 석물들이 어지럽게 흐트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 유일하게 파괴되지 않고 남은 미로의 탑이 보였다.

원명원을 끝으로 답사를 마치고 15시에 공항을 향해 출발했다. 비가 계속 내렸다. 중우가 내린다는 예보대로 내리는 것 같았지만 답사를 마쳐서 별 지장이 없었다. 가이드는 앞으로 40시간 비가 내리고 눈도 온다고 예보되었다고 했다. 올해 한번 태풍 온 날 비행기가 결항 한 적이 있지만 이륙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다.

18시 50분 북경공항 출발하여 9시 50분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모두 무사히 알찬 일정을 무사히 마친 것에 안도하며 인사를 하고 귀가했다. ▣



원명원 전체 모형



파괴된 흔적이 남아 있는 원명원



원명원의 미로의 탑